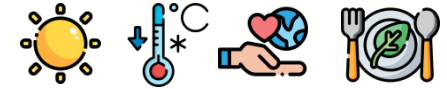


# 더 자스민 일보(一步)



당신 행복을 바라는 글로 전하는 마음♥



- 글은 "밑줄 클릭"만으로 열람 가능합니다 -

Since 2020

## Hot 뜨거워서 데일 뵈?



지난 2월 3일, 글쓰는 자스민 손은경 작가와 이책방 변대원 작가의 콜라보 특강이 있었다. '자기가치를 10배 높이는 글쓰기'라는 주제로, 써야 하는 이유를 '성장'에 포커싱해 풀어낸 강의였다.

그들에 따르면 글쓰기는 자기발견이자 자기의식이다. 고로 쓰는 과정은 비로소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고 그 과정에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들 말이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 많을 수록 글은 쌓여 한 권의 책이 된다고 한다. 성장의 결과물인 셈이다.


연휴 다음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가 참석해 주었고, 청자의 불타는 열정으로 강의는 마치 대프리카에 있는 듯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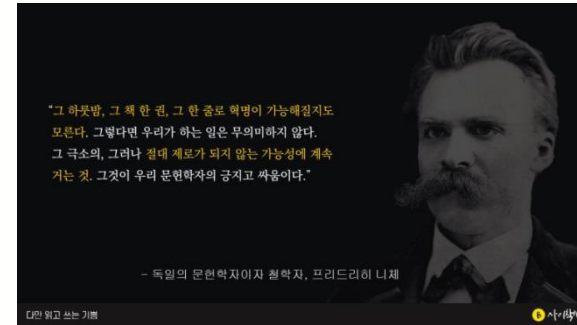
7주간 있을 본격 성장 여정은 오는 2월 중 시작된다. 추가 사항은 [여기 링크](#)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표류하는 우리를 깨 한 계단 오르는 여정, 그것은 성장입니다.



### 먼슬리 미니특강 소식

- 주제 : '내가 써도 될까' - 책 쓰기를 멈추게 하는 두려움 극복!
- 날짜 : 2022.02.16(수) 밤 8시 ([자세한 안내](#))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로 혁명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의미하지 않다. 그 극소의, 그러나 절대 제로가 되지 않는 가능성에 계속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문헌학자의 긍지고 싸움이다."

-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다른 위고 쓰는 기법

### "우리는 혁명가다."

뜻밖의 만남이 미세하게 운명을 바꾸듯, 나는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던가. 우리 만난 책 한 권으로 운명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던가. 내가 남기는 한 줄의 혁명은 또 누구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쓰고 읽는 우리는 혁명가였다.

### 퇴사 후 나에게

네 최선은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 뿐이라고.



이달의 인물 :



아는 이모(박현아 작가님)

"2022년, 자스민 쌤에게 귀인이 나타날 거예요."

그가 봐준 명리는 진실이었던가. 내게 귀인이 찾아왔다. 아는 이모, 박현아 작가. 아무래도 명리를 믿게 한, 명리를 공부 하고 싶게 만든 장본인이다.

현아에게 고마운 건 너무나 크다. 알게 된 지 오래지 않아 많다가 보다 '크다'가 맞다. 그의 진심에 울컥할 만큼 커다란 응원을 받기 때문이다.

사실 또 고마운 건, 현아 덕에 알게 된 인연들 때문. 박을 물어다 주는 제비에 불과하다며 현아 제비절을 풀지만 나는 안다. 현아는 제비가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우리 아이 주식부자 만들기>](#)